새 소방법 적용 두달 앞 … 기준 맞춘 업소 광주 45%·전남 43%

다중시설 '소방대란' 오나

노래방 등 비용 부담 커 포기…폐업 속출 우려

새 소방법 소급 적용시한을 두 달 앞두고 노래방·유흥업소 등 광주·전남지역 다중이용업소 10곳 중 6곳이 강화된 기준에 맞춰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5월29일까지 대상 업소의 완비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사실상 시설을 포기한 업소들도 적지 않고 폐업을 고려 중인 곳도 많아 '소방대란'이 우려된다.

개정 소방법에 따르면 고시원·산후조리원·PC방·노래방·유흥주점·비디오방·바닥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은 소급적용 시한까지 ▲목제·커튼 등 불연성 설비▲방염처리 주출입구 반대쪽에 규격에 맞는 비상구 설치▲바닥면적 150㎡ 이상일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각 실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비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율 낮아=하지만 이 같은 소급기준이 적용되는 광주시내 2천483개 업소 중 소방시설을 완비한 곳은 1천120개로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도 전체 3천285개 시설 가운데 1천494개인 45%에 그치고 있다. 비상구는 50%와 기타 소방시설 44%의 완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간이스프링클러 32% ▲방염처리 3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방서별로는 광산이 61%로 완비율이 가장 높고, 동부 42%·서부 43%·북부 38%·남부 28% 순으로 완비율이 떨어졌다.

전남은 휴폐업 대상을 뺀 3천732개 업소 가운데 43%인 1천609개 업소만이 소방설비를 완비했다. 시설별로는 54%의 완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용부담에 상당수 포기=소방시설 완비율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층 이상 다중업소는 비상구와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방염처리를 위한 인테리어도 상당액이 소요돼, 소방설비를 새로 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서 PC방을 하는 김모(43)씨는 "비상구와 계단을 설치하려면 2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게임업소에 대한 다른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영업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소방설비를 미루고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법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고 시설 설치를 미루는 업소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들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개정 소방법 안 지키면?=오는 5월29일까지 소방시설기준을 맞추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소방법은 또 행정명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순 원지교 28중 추돌 8일 오전 28중 연쇄추돌 사고가 난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사고 현장. 광주·전남에는 7~8일부터 내린 최고 4.2㎝의 눈과 짙은 안개로 도로가 결빙,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빙판길에 안개 … 추돌사고 잇따라

어제 광주·전남 3명 숨지고 수십명 다쳐

7~8일 광주·전남에 최고 4.2㎝의 눈이 내리고 짙은 안개가 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 3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다.

8일 오전 7시7분께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원지교' 인근 국도 29호선에서 차량 28대가 연쇄추돌했다.

이날 사고는 화순읍에서 능주쪽으로 달리던 이모(40)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누비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짙은 안개로 전후 차량 16대가 뒤엉키면서 일어났다. 이어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 7대와 5대도 차례로 부딪혔다. 반대편 차선에서도 빙판길 미끄럼으로 인해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도로에서만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간 담양군 월산면 '발신제'에서 이스타나 승합차가 2m 가량 아래 길 옆으로 굴러 김모(66)씨가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차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11명이 타고 등산을 가기 위해 타고 있었다.

또 40여 분 뒤에는 나주시 영산동 외곽순환도로에서 무쏘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 1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앞서 새벽 3시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어등대교에서 1t 포터 트럭이 길 옆 난간을 들이받고 논두렁으로 추락, 운전자 노모(28)씨가 숨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서울 도심 反FTA 시위

소·염소 몰고 거리행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농민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소와 염소를 몰며 거리를 행진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농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8일 오후 1시10분부터 20여 분 동안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100여m 인도 구간에서 소 1마리와 염소 2마리를 몰고 행진했다. /연합뉴스

입출금기 신권 입금 오류

문의하는 사이 현금 훔쳐

일부 금융권 ATM 교체율 50% 불과 입출금 피해 조심

새 지폐 발행 후 금융권의 ATM(입출금기) 기기 교체 작업 지연을 틈탄 신종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 진모(36·상업)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금남로 3가 농협 금남로 지점 365 코너를 찾았다. 이날 벌어들인 돈 43만원을 입금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365 코너의 ATM기는 입금을 '거부'(?)했다. 오류가 난 원인은 진씨의 돈이 1만원짜리 신권 지폐였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자영업자 L씨(54·광주시 북구)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L씨는 진씨가 입금 실패 원인을 농협 측에 문의하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훔쳤다.

L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광주 동부경찰 강력범죄수사 4팀(경위 김상주)이 365 코너 CCTV를 확인 후 잠복 중 다시 나타난 L씨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L씨가 ATM기 교체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고 또다시 범행 대상을 노렸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집 주변에 여러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 금남로까지 나온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L씨는 그러나 "금남로 지점에 볼 일이 있어 나온 것"이라며 "단순히 우발적 충동에 의해 돈을 훔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ATM 기기 교체작업이 신권 교체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진씨 같은 피해자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ATM 기기 교체가 늦어지는 것은 1대당 1천600만~3천만원씩 소요되는데다, 부품·시스템 운용 프로그램 등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광주본부의 경우 중앙회가 관리하는 113대 중 49.6%인 56대가 신권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 농협 측은 늦어도 오는 5월까지 전 기종의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는 "신권이 입금되지 않는 기기엔 안내문을 붙여놓았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중국산 조기 재가공해 영광굴비로 대량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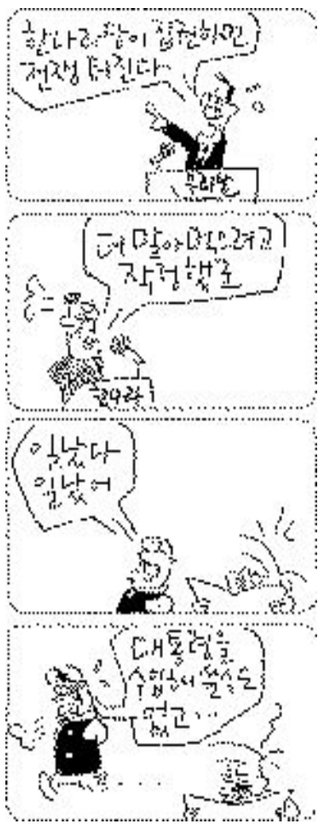
해경, 40대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일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재가공해 대량 판매한 영광 모 굴비유통업체 대표 이모(46)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설날을 전후, 중국산 냉동 참조기 80박스(판매가 기준 1억600만원 상당)을 전통 영광굴비 가공방식으로 가공, 이 중 1억원 가량을 국산으로 속여 전화주문 방식으로 전국 소비자 1천120명에 전화주문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2만7천원에 구입한 중국산 조기인 10㎏ 1박스를 국내산 영광굴비 4~5개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10~40배(5만8천원~23만5000원)의 가격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나원참 〈7072〉 김종두



이웃집 장애인 통장 훔쳐

영광경찰은 8일 이웃 장애인의 집에 침입, 장애수당 등 430만원이 든 예금통장을 훔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목사가 공사현장서 건축자재 '슬쩍'

쌍나팔

○…나주경찰은 교회 신도들과 함께 한밤중 공사 현장의 건축자재를 훔친 모 교회 목사 이모(57)씨를 8일 구속하고 남녀 신도 11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께 나주시의 한 도자기 공장 신축 현장에서 신도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편목 150개·장대석 50개 등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화물차량에 싣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 목사 등은 '개척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가 부족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나주=정칠현기자 chjung@